

2015년 4월 13일 보낸 편지입니다.

'맑음. 옥문을 나왔다.'
'晴れ。獄門を出た'

이순신은 어명 거부 죄목으로
李舜臣は、王命を拒否した罪名で

심한 고문을 받고 28일 동안 투옥되었습니다.
ひどい拷問を受け28日の間投獄されました

백의종군으로 간신히 풀려난 1597년 4월1일,
一兵卒として、辛うじて解放された1597年4月1日

'난중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맑음. 옥문을 나왔다."
'乱中日記'にこのよう書きました。'晴れ。獄門を出た'

이튿날인 4월2일에는 "필공을 불러 붓을 매게 했다."고
二日目の4月2日には'畢公を呼んで、筆を結った'と

적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막다른 상황에서도
書きました。生死を行き来する、のっぴきならない状況でも

결코 체념, 분노, 절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決して諦念、憤怒、絶望を選択しませんでした

'맑음'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혹한 운명을
'晴れ'は、自分に与えられた過酷な運命を

담담히 받아들이겠다는 심정의 표현이고,
淡淡と受け入れる心情の表現で

'붓을 매게 했다'는 것은 과거에 매이지
'筆を結った'ということは過去にとらわれ

않고 내일을 준비하겠다는
ず、明日を準備する

의지의 표현입니다.
意思の表現です

- 정지환의 《30초 감사》 중에서 -
- チョン・ジフアンの〈30秒感謝〉より -

* 그래서 '성웅' (聖雄)입니다.
* だから'聖雄'です

'나라를 건져낸'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国を救う'最高の指導者です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そのどんな状況にも、絶望を選択せず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서도 내일을 준비하는
いくら難しい立場でも明日を準備する

성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도 있습니다.
聖雄がいるから、今日の我々もいます

“맑음. 옥문을 나왔다.”는 그 짧은 한 마디에
'晴れ。獄門を出た' という短い一言に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습니다.
慰勞を受け、勇氣も得ます

'맑음' 을 꿈꿉니다.
'晴れ' を夢見ます

맑다

[형용사]

(흐리지 않다) 清い; 澄んでいる; 冴えている.

(일의 뒤가) 後腐れがない.

(생활이) (生活が) 清い; 貧しい; 役得がない.

어명 (御命)

[명사] 王の命令. (=어령 (御令))

거부 (拒否)

[명사] 拒否.

ざいめい [罪名] 발음 재생

2. 죄목. 3. 죄를 지었다는 세상 소문.

백의종군 (白衣從軍)

[명사] 無位無官の一兵卒として従軍すること.

간신히

[부사] 辛うじて; やっと(のことで); あやうく; からくも; ようやくのことで; ...

풀려나다

[자동사] 釈放される; 解かれて出る.

난중일기 '乱中日記'

붓

[명사]

筆.

毛筆. (=털붓)

毛筆·鉛筆·ペンなどの総称.

넘나들다

[자동사] [타동사] (頻繁に) 出入りする; 行き来する.

막다르다

[형용사] (主に '막다른' の形で) 突き当たりの; 行き詰まりの; ...

체념 (諦念)

[명사]

諦念.

道理を悟る心.

断念; 諦め.

절망 (絶望)

[명사] 絶望.

담담히

[부사] 淡淡と.

건져내다

[타동사]

(水の中から) つまみ出す; (溺れたものを) 救う; 救...

(困難·危険·罪から) 救う; 救い出す.

처지 (處地)

[명사]

(입장) 立場; 置かれている境遇または環境.

20150413.txt

(사이) 間柄.
(지위) 地位または身分; 分際.

2015년 4월 14일 오늘의 아침편지

'오빠, 정말 이럴 거야!'
'兄さん、本当にこうなの!'

"오빠, 정말 이럴 거야!"
'兄さん、本当にこうなの!'

여동생이 주먹을 치켜들고
妹がこぶしを振りかざして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며 소리쳤다.
鋭い目つきで、睨んで叫んだ

그레고르의 변신 이후 그녀가 직접 그에게
グレゴールの変身以後、彼女が直接彼に

던진 최초의 말이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投げた最初の言葉だった。彼女は母を

졸도에서 깨어나게 할 만한
卒倒から起こすだけの

무슨 약물이든 가져오려고
ある薬物を持ってこようと

옆방으로 달려갔다.
横の部屋へ走った

-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중에서 -
- フランツ・カフカの〈変身〉より -

* "오빠, 정말 이럴 거야!"
* '兄さん、本当にこうなの!'

어느날 갑자기 흉측한 벌레로 변신한 오빠!
ある日突然、悪質な虫に変身した兄!

여동생이 절규하듯 외마디 고향을 질러대고
妹が絶叫するように、一筋の叫びで

어머니는 아예 졸도해 버립니다. 멀쩡해 보이던
母はずでに卒倒してしまいます。完全に見えた

사람이 어느날 벌레로 돌변하는 일이 있습니다.
人がある日、虫に急変することがありました

때때로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時に家庭で起きることです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社会で起きることです

여기저기서 외마디가
あちこちで、一筋が

터져 나옵니다.
沸き起こります

치켜들다

[타동사] 振り上げる; 振りかざす.

鋭い目付き 발음 재생 (표제어: 눈소리)

매서운 눈소리

노려보다

[타동사]

にらむ; にらみつける; にらまえる[속어]; (鋭い目付きで)見つ...

(物や機会を)ねらう.

소리치다

[자동사]

声を張り上げる.

氣勢をあげる; どよめく.

졸도 (卒倒)

[명사] 卒倒; 昏倒.

흉측 (凶測·兇測)

[명사] 흉악망측의 준말

벌레

[명사]

虫.

虫けら; 昆虫. (=버러지·충(虫))

(ひゆ的に) (物事に)熱中する人.

절규 (絶叫)

[명사] 絶叫.

외마디

[명사]

(竹などのようなものの)一節.

一音節の語.

고함 (高喊)

[명사] 叫び; どなること.

외마디

[명사]

(竹などのようなものの)一節.

一音節の語.

고함 (高喊)

[명사] 叫び; どなること.

아예

[부사]

初めから; てんで; 頭から全く.

絶対に; 決して.

졸도 (卒倒)

[명사] 卒倒; 昏倒.

멸정하다

[형용사]

(온전하다) 欠ける所がない; 完全だ; 無欠だ. [작은...]

(뻘뻘하다) 厚かましい; 凶凶しい.

돌변 (突變)

[명사] 急変.

터지다

[자동사]

(싸움·사건 등이) (事が)突発[勃発]する; 起こる.

(갈라져서) (塊をなしたものが)割れる; (張り)裂ける; 爆発(...)

[보조동사] 用言の語尾 ‘-어’ · ‘-아’ などの後に付いて, 事...

2015년 4월 15일 오늘의 아침편지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大丈夫、大丈夫、大丈夫'

괜찮다.
大丈夫

딱 좋아하는 날씨다.
ちょうど、好きな天気だ

선선한 바람이 우리 추억까지
さわやかな風が、我々の追憶まで

휩쓸고 가지만
席卷するが

괜찮다.
大丈夫

딱 맘에 드는 하루다.
ちょうど、お気に入りの一日だ

자꾸 떠오르는 얼굴에 가슴이
しきりに浮かぶ顔に胸が

먹먹하지만
つまるが

괜찮다.
大丈夫

딱 간이 맞는 생선구이다.
ちょうど、体に合う焼き魚だ

아무 생각도 없이 한 입 먹어보니
何も考えず、一口たべたら

결국 눈물이 짜게 흐르지만
結局、涙がつらく流れるが

- 정지아의 《사월의 편지》에 실린 시 <어느 날> 전문 -
- チョン・ジアの<セウオルの手紙>に掲載された詩<ある日>前文 -

* 세월호 사건으로 숨진 고(故) 정지아 학생이
* セウオル号事件で亡くなった、故チョン・ジア学生が

생전에 쓴 글을 모아 어머니가 책으로 엮었습니다.
生前に書いた文章を集め、母が本にしました

전혀 괜찮지 않은 세상인데, 저 먼 하늘나라에서
全然大丈夫じゃない世界だが、あの遠い空の世界から

들려오는 듯한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하는
聞こえるような"大丈夫、大丈夫、大丈夫"という

위로의 말이 너무 아리게 다가옵니다.
慰勞の言葉が、とてもつらく近づきます

내일이면 세월호 사건 1년.
明日で、セウオル号事件1年

아직도 눈물이 짜게
まだ、涙がつらく

흐릅니다.
流れます

선선하다
[형용사]
(天氣が)ほどよく涼しい; さわやかだ. [작은말] 산산하다.
(性質が)あっさりして快活だ.

휩쓸다
[타동사]
(風·波·洪水などが)荒らす; 襲う.
(모조리)さらう; 風靡する(사상 등이).
席捲する.
とりとめもない想念が次から次へと浮かんで来る 발음 재생 (표제어: 상념)
견잡을 수 없는 상념이 자꾸자꾸 떠오르다

먹먹하다
[형용사] (耳が)詰まったようだ; よく聞こえない.
간 (肝)

[명사]
[생물] 肝; (ひゆ的に) 肝っ玉; 胆力.
(食品としての) 肝臓; レバー.

짜다2
[형용사]
(맛이)辛い; 塩辛い; しょっぱい[속어].
(마음이) けちで渋い.
[속어] (박하다) (採点などが)辛い; きつい; 酷だ. (⇨후하다)

엮다
[타동사]
(새끼 등을) ひも·縄などで交差に結く[編む].
(물건을) 物をまばらに組み合わせてしぼる[結う].
(사실을) いろんな素材をあつめて文章を組み立てる.

아리다
[형용사]
ひりひりする.
ぴりっと辛い; えぐい; えがらい; えがらっぽい.
(傷が)ちくちくと痛む.

2015년 4월 16일 오늘의 아침편지

엄마의 등, 엄마의 파마머리, 엄마의 주름
母の背中、母のパーマ頭、母のしわ

나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지만
私が時間が過ぎるほど大きくなるが

때를 밀어주는 엄마의 등은 변함이 없다.
時を後押しする母の背中は、変わりがない

나는 머리 모양을 매일 바꾸지만
私は、髪型がが毎日変わるが

그 독한 냄새의 파마머리는 변함이 없다.
その毒々しいにおいのパーマ頭は変化がない

나는 짜증이나 널 때야 주름이 보이지만
私は、癩癩を起すときはしわが見えるが

엄마의 이마에는 매일 하나씩
母の額には、毎日1つつ

주름이 늘어난다.
しわが増える

- 정지아의 《사월의 편지》 중에서 -
- ジョン・ジアの〈セウオルの手紙〉より -

* 단원고 2학년이던
* ダンウォン高2年生だった

고(故) 정지아 학생이 생전에 남긴 글입니다.
故ジョン・ジア学生が生前に残した文章です

아마도 지난 1년 엄마는 송두리째 변했을 것입니다.
たぶん、過ぎた1年の母は、根こそぎ変わったでしょう

엄마의 등은 더 굽어져 오그라붙었을 듯하고,
母の背中はさらにまがって、傾いたようで

엄마의 파마머리는 완전히 풀어졌을 듯하고,
母のパーマ頭は完全に解かれたように

엄마의 주름은 더 많아져 셀 수조차 없을
母のしわはさらに多くなって、星の数ほど

듯합니다. 마음에 쌓인 새까만 숯검정은
のようです。心が詰まった真っ黒な灰は

이미 석탄처럼 변했을 것입니다.
すでに、石炭のように変わったようです

“어머니... 힘내세요.”
“お母さん、元気を出してください”

등

[명사] 背; 背中.

주름

[명사]

皺.

衣服のひだ; 折り目.

[식물] キノコのかさの裏のひだ.

파마 (←permanent)

[명사] パーマ.

밀어주다

[타동사] 後押しする; 後ろ盾をする.

변하다 (變—)

[자동사]

変わる.

(상태가) 異なる状態になる; 変ずる; 変化する.

(세월이) (年月が) 改まる.

독하다 (毒—)

[형용사]

(유독) 有毒だ.

(맛·냄새가) 味·匂[臭]いなどの度が強い.

(성질이) 毒毒しい; 残忍で悪辣だ.

짜증

[명사] 癩癩; 癩; むかつ腹; 嫌氣; (子供の) 虫...

송두리째

[부사] 根こそぎ; 全部; ことごとく; すっかり; 丸ごと.

오그라들다

[자동사]

(안쪽으로) (内側に) くぼむ; へこむ.

(거죽이) (表面が) 縮む; 縮(こ)まる; 縮かむ; 収縮(し...

(형세가) (形勢などが) 細っていく; 傾く. [큰말] 우그러들...

ほしのかずほど [星の数ほど]

셀 수 없을 정도의 수.

(빛·근심 등이) 積もる; たまる.

새까맣다

[형용사]

(색이) 真っ黒だ.

(앞날이) 先がはるかに遠くておぼつかない; 真っ暗だ.

(전혀 모름) まったく知らないか, 全然記憶にない. [큰말]...

숯검정

[명사] 炭の煤.

2015년 4월 17일 보낸 편지입니다.

'사람의 도리'
'人の道理'

좋은 일을 생각하면
いいことを考えれば

좋은 결과가 나오고,
いい結果が出て

악한 일을 생각하면
悪いことを考えれば

나쁜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悪い結果を呼び起こす

선한 일을 생각하면 기쁜 일이 찾아오고
善なことを考えれば、喜ぶことが訪ねてきて

나쁜 일을 생각하면 꺼림칙한 운명이
悪いことを考えれば、忌まわしい運命が

기다리기 때문이다. 이 진리는
待つからだ。この真理は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古今東西を論じる余地もなく

마찬가지다.
同じだ

- 이나모리 가즈오의 《사장의 도리》 중에서 -
- 稲森和夫の〈市場の道理〉より -

* 심은 대로 거둡니다.
* 植えたままに成果を得ます

동서고금 만고의 진리입니다.
古今東西、万古の心理です

오늘 내가 거둔 것은 과거 내가 뿌린
今日私が成果を得ることは、過去私がまいた

씨앗의 열매일 뿐입니다. 꺼림칙한 씨앗이
種の果実であるだけです。忌まわしい種が

꺼림칙한 열매, 꺼림칙한 운명을 안겨줍니다.
忌まわしい果実、忌まわしい運命をもたらします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운명까지
個人の次元を超え、共同体の運命まで

탁하고 꺼림칙하게 만듭니다.
濁って、忌まわしくします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人の道理'ではありません

도리 (道理)

[명사]

道理.

方法; すべ.

불러일으키다

[타동사] (마음·행동·상태 등을) (感じ·行動·状態を)催(も...

꺼림칙하다

[형용사] (何となく)氣にかかる; 忌まわしい; 禍禍しい; 氣が差(...

東西古今 발음 재생 (표제어:고금)

동서고금

막론하다 (莫論—)

[타동사] (主に '막론하고' の形で) '論じる余地もなく; 言...

심다

[타동사]

(풀·나무를) (草木·根などを)植える.

(씨를) (種を)まく.

(마음에) (心に確實に)植えつける.

거두다

[타동사]

(散らばったものを)集め収める; 取り入れる. [준말]걷다³.

(結果·成果を)得る; 収める.

(징수) (金などを)取り立てる. [준말]걷다³.

만고 (萬古)

[명사] 万古; 世の久しい間; 永久.

열매

[명사]

実.

果実.

結果.

차원 (次元)

[명사] 次元.

탁하다 (濁—)

[형용사]

濁っている.

(흐리다) (液·空氣などが)澄んでいない.

(세상·마음이) (世·精神が)清らかでない.

2015년 4월 18일 아침편지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임선주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イム・ソンジュ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내 기억 속에 묻혔으니...
私の記憶の中に埋まっていたから

우리들은 함께 죽으리라.
我々はともに死ぬだろう

내 속의 죽은 자가 죽지 않도록,
私の中の死者が死なないように

나로 하여금 처음으로 죽지 않기를 바라게 한
私を初めて死なないように望むようにした

사람은 이 외할아버지였다. 그 후로 떠나가버린
人は、この母方の叔父だった。その後、なくなった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덤이 아니라
数多くの愛する人々は、墓ではなく

내 기억 속에 묻혔으니, 내가 죽지 않는 한
私の記憶の中に埋まっていたから、私が死なない限り

그들도 계속해서 살아가리라는
彼らも、続けて生きるという

사실을 나는 안다.
事実を、私はわかる

-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영혼의 자서전》 중에서 -
- ニコス・カザンザキスの〈魂の自叙伝〉より -

* 너무 아픈 4월입니다.
* とてもつらい4月です

영문도 모른 채 떠나보낸 수많은 생명,
訳も分からないまま、亡くなった多くの生命

하물며 1년이 되도록 어둡고 차디찬 바닷속
まして1年が経つほど、暗く冷たい海の中

피붙이를 속절없이 기다리는 가족들이 아직 있습니다.
肉親を虚しく待つ家族たちが、まだいます

살아 있는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살아 있는 우리
生きている我々皆が記憶して、生きている我々

모두가 그 여한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皆がその遺恨をほど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うして

별이 된 생명들이 가족들과 계속해서
星になった生命が、家族と続けて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기억 속에
生きるのです。我々の記憶の中で

늘 살아있을 것입니다.
ずっと生きているのです。

묻히다

[타동사] [‘묻다’의使役] 付ける; くっ付ける.

[자동사]

[‘묻다’의受け身]

埋められる; 埋まる; うずもれる; 葬られる; 埋かる[속어]...

자서전

[명사] 自叙伝; 自伝. [준말] 자전(自伝).

訳がわからずきょとんとしている 발음 재생

영문을 모르고 멀거니 있다

하물며

[부사]まして; なおさら; 況や.

피붙이

[명사] 血族; 肉親. (=혈육·살붙이)

속절없이

[부사] どうしようもなく; やるせなく; むなしく.

여한 (餘恨)

[명사] 遺恨.